

강도·소매치기 구속 원칙

광주지법, 민생범죄 영장 발부 기준 마련

주거침입 절도도 구속

앞으로 강·절도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5일 최근 광주지역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강·절도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 구속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 지법은 또 오는 30일 형사법관 회의를 거쳐 강·절도에 대한 엄정한 양형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지법이 마련한 구속기준에 따르면 강도죄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절도 범죄도 ▲피의자의 범행이 보통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치 않은 점을 들어 대부분 구속을 원칙으로 했다. 단 전과·피해액·범행의 수법 및 횡수·공범 유무·합의 여부·자백

여부·직업·주거 등을 참작기로 했다. 소년 절도의 경우는 처벌 전력 외에 학생 신분 유지·가출·부모의 관리 여부 등을 주요 요소로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거침입·홍기소지·특수절도 등은 범행의 특성을 구속의 가중적 요소로 고려한다. 이 가운데 주거침입 절도는 생명과 가정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단순절도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치 않을 때 구속을 원칙으로 하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극빈자일 경우 기각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상습절도 사범은 동종전과 외에도 절취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누범이거나 1년 이내에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구속한다.

민생침해사범 구속 기준

구속여부		
강도·소매치기	구속	구속
절도	구속 ·상습성·주거부정·주거침입·홍기소지·특수절도·누범·동종전과	불구속 ·피해 경미·피의자 극빈·종일 경우 기각 가능

<자료: 광주지방법원>

소매치기 사범은 범행 장소·수법·전과를 참작하고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영장 발부가 원칙이다.

최인규 광주지법 공보관은 “최근 광주지역에 노래방 강도 등 강·절도가 잇따라 발생해 사건 처리가 늘어남에 따라 법원차원에서 구속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속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건설사주 납치 주범 검거

폭력조직 국제 PJ와 부두목 조모씨

경찰, 뭇돈 14억원 출처 조사

부하 조직원 등을 동원해 건설사주를 납치한 광주지역 폭력조직 부두목 이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건설사주를 납치, 협박한 국제 PJ와 부두목 조모(48)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조씨를 숨겨준 3명을 범인은닉 혐의로 함께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후배 조직원들을 시켜 지난해 11월21일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남구 K호텔 사우나에서 모 건설사 사주 공모(47)씨를 전치 2주 정도의 상처를 입힌 혐의이다.

조씨는 납치 당일 공씨에게 지난 93년 7월께 자신이 건설회사 사장 등에게 그림을 강매한 혐의로 오랜 기간 고도소에서 복역한 사실과 관련, 당시 공씨가 검찰에서 피해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출감 후 자신을 출대한 사실에 대해 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씨 납치 사건 다음날 국제 PJ와 행동대장 김모씨의 계좌로 출처 불명의 14억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됐으며, 이 돈이 여러 계좌를 통해 조씨의 처에게 전달된 점 등으로 미뤄 조씨가 건축 공사 이권 등과 관련,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범행 뒤 서울과 경기 지역 원룸과 모텔 등을 전전하다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원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7명의 공범을 추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25일 오후 광주 모 건설사주 납치 사건을 주도한 국제 PJ와 부두목 조모(사진 가운데)씨를 검거, 이송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hoi@

적 중이다. 한편 경찰은 공회장 납치 사건과 관련, 조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9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했으며, 이들은 은닉해준 5명을 붙잡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니원침 (7113) 김장두



더 좋은 건축·산업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 들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 본사: (062)514-3002 ▶ 공방: (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 광주점: (062)525-9002 ▶ 전주점: (063)271-5051



법원의 날 기념식 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방변호사회·광주지방법무사회가 25일 오전 광주지검 청사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법원의 날’ 기념식을 갖고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 ‘제44회 법원의 날’ 행사 다채

광주지검, 42개 범죄 없는 마을 표창

제44회 법원의 날인 25일 광주에서는 법 정신을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광주지검(지검장 신상규)은 이날 오전 6층 대회의실에서 박준영 전남지사과 김관재 광주지법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법원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 신상규 검사장은 “법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사회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

건”이라며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곡성군 가정·덕양·대신마을 등 전남 42곳이 범죄 없는 마을로 표창을 받았고, 유공자 김양술(56)씨 등 2명도 법무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관련기사 20면>

또 광주지방변호사회 최병근 변호사 등 12명이 이날 법질서 확립 유공

자로 선정됐다.

광주지법도 이날 광주 동산·장원초등학교 100여명을 초청해 ‘법원의 모든 것 알리기’ 행사를 가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평택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636 최대단지!
평택·천안·홍성·공주권의 최고 입지!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9000

광주·전남 실종 아동 13명

투입 경찰 고작 30명... 대부분 미제

식목일이었던 지난 1997년 4월5일, 영암군 금정면 월경리 할머니 집에서 낮잠을 자던 변유정(당시 29개월)양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2000년엔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간 최동희(당시 1년생) 김성주(7세·강진군 강진읍)양이 실종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실종된 아

동(14세 미만)은 올 현재 13명.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관할 지구대에서 자체 수색을 벌인다. 하지만 전담 형사가 없기 때문에 미제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전국 미야 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에 가입, 직접 전단지 뿌리거나 어린이보호소를 찾고, 현상금을 내

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5년 이후 실종발생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기동타격대 등 30여 명을 투입하고 있다. 장기 실종 아동들은 전남청 여성청소년계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광주·전남에서 가장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아이는 이동훈(4세)군. 이군은 1983년 11월20일 목포시 산정3동 일산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없어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재산 숨겨둔 개인회생 ‘징역형’

광주지법, 전국 첫 판결

자신의 재산을 은닉한 뒤 개인회생 혜택을 받은 농·어민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사기회생’(詐欺回生)과 관련된 전국 최초 판결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이영광 판사는 25일 자신의 재산을 허

위로 신고해 개인채무자 회생 혜택을 받은 혐의(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개인회생 절차의 취지를 악용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 금융기관 등에 허위의 부담을 증

가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4억여원에 달하는 자신의 재산을 축소, 3천여만원으로 신고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판사는 또 4억여원에 달하는 자신의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개인회생혜택을 입은 혐의로 기소된 방모(6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

인터넷 쇼핑물 ‘사기의 거물’ 달미

○경매사이트에서 톤만 채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네티즌을 울려온 인터넷 사기의 거물(?)이 경찰에 달미.

○25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0 경매사이트 등에서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의 구입 의사를 밝힌 네티즌에게 80여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은 임모(23·광주시 서구 광천동)씨를 부산 해운대경찰이 붙잡았다.

○고졸 출신인 임씨는 전남경찰청에서만 8건을 비롯, 서울·대구·포항·대전 등 전국 경찰에서 무려 57건의 수배를 받아온 상태.

○전과 1번(절도)인 임씨는 쇼핑물 게시판에 연락처를 남긴 네티즌에게 전화를 걸어 “경매사이트 수수료를 내지 않게 직거래하자”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고.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Kwangju Ilbo



광주일보 창사 55주년을 축하합니다.

큰 나무는 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류에 흔들림 없이 55년을 지켜온 정론, 광주일보 —

지원 전력(주) 대표이사 문성수	동일벨트상사 대표이사 표박재식
피자지도 풍암점 임직원 일동 T.(062)652-9999	(주)성실공업 대표이사 서단중
정통중요리전문점 전가복 대표 표홍영표 광주 동구 효령리 7번지 현대세아점 T.(062)233-2337~8	승완건설(주) 대표이사 이승재
(주)신우종합건설 대표이사 박경구	이지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지섭
전일출판사 대표 표임근성	(주)백산·백진건축 대표이사 문정필